

4과

사랑은 교만(자랑)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만은 사랑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교만이 스며들면 사랑의 열매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제로 팩터(zero factor)’와 같습니다.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번 순모임을 통해 우리 안의 교만을 점검하고, 함께 다루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시작」

교만의 역사는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와와 뱀이 나눈 대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이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1. 교만이란 하나님 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심이니라” (창 3:5)

2. 교만이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째 뽑지 않은 나무가 다시 자라듯이, 죄의 뿌리인 교만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각종 죄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됩니다.

「교만의 속성」

- **보편성** - 교만은 보편성을 지닌다. 특별함이 없어도 교만은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내제되어 있는 죄의 속성이다.
- **고착성** - 교만은 떼어내려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찰거머리와 같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겸손해지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고자 합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우드에게 보낸 열네 번째 편지에서 전수한 겸손을 막는 비법은 매우 교묘합니다. 겸손해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스스로 반성하며 뉘우치려 할 때는 다시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에 뿌듯해 게 만들어, 결국 어떤 형태의 겸손마저도 교만으로 바꾸어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C. S. Lewis, 『스쿠르테이프의 편지』]

- **무자각성** - 가장 무서운 영혼의 질병인 교만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드러남에도 교만은 자기를 속이고 오히려 자랑하게 합니다.
- **무분별성** - 교만은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잠 14:3, 욕 1:3)
- **점증성** - 교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라납니다.

패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 4형제 [류인현,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 (4) 자만 - 자기 분야에 자신감이 불고 익숙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
- (3) 교만 - 자신을 높이는 것.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마음이 높아진 상태
- (2) 거만 - 자신이 더 잘났다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거들먹 거리는 상태
- (1) 오만 - 오만불손의 불치병. 높아짐의 극치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하찮게 여김.

- **비포장성** - 교만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다.

나눔 질문

교만은 항상 경계해야 할 죄 중에 죄입니다. 교만의 속성 가운데 보편성이 있기에 우리 중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만의 4형제(자만, 교만, 거만, 오만) 가운데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교만의 증상들」

다음 항목 가운데 내 삶에서 자주 드러나는 모습 다섯 가지를 표시해 봅시다.

비교/경쟁/ 높아지려 함/자만/고집/자기 자랑/과장/자기 변호/이기심/
통제(control)/ 책임 전가/ 불순종/ 원망과 불평/ 정죄와 비판/ 다툼/
우월감과 열등감/ 시기와 질투/ 화와 분노/ 무례한 말/ 자기 의/ 배우기 싫어 함/
섬이 없음/ 일탈/ 감사가 없음

「교만의 대가」

1. 관계의 단절

(1)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2) 사람과의 관계 단절

2. 수치를 당함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앞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 119:78)

3. 반복되는 실패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단 5:20)

4. 최후 심판을 받음 (말 4:1)

「교만을 어찌할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교만뿐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높여 주시면 하늘을 찌를 듯 교만했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
교만은 나를 노이는 척 하다가 결국은 늘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멸망으로 인도했다.

교만의 대가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겸손하리라 수없이 다짐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더 큰 교만 뿐이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에 위로 받지만, 교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이 앞선다. [안창천, 『성공의 적, 교만』]

「교만을 이기는 12가지 방법」 (안창천. 참조)

1. 교만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2. 자신의 교만을 자각한다.
3.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4.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5. 꿈을 크게 가지되 마음은 낮추도록 한다.
6. 고난을 겸손 훈련 교재로 사용한다.
7. 비교 의식을 버린다.
8.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
9. 날마다 죽는 것을 연습한다.
10. 권위에 순종한다.
11. 범사에 감사한다.
12.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함께 읽기」

빌립보서 2:6-8

⁶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⁷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눔 질문

이번 순 교재를 통해서 교만의 시작, 속성, 증상, 대가와 대처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점과 함께, 구체적인 적용을 나누어 봅시다.